

'사스' 망부석



| 김상우 / YTN 사회부 차장

'사스'는 기다리다 지친 망부석과 같다

태풍 피해를 막으려면 기상청의

정확한 예보가 필요하듯 '사스'를

막으려면 우선 보건당국의 정확한 예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밝히면 '부정타는 짓'을 해왔다고 욕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자 상당수는 차라리 빨리 터지길 기다렸으니까요. 기다리는 것도 지쳤기 때문이지요. 숙제를 하기 위해 하루 종일 카메라를 들고 하늘만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주일째 말입니다. 처음에는 UFO가 내 머리위로 지나갈 수도 있으니 그것을 찍으라는 숙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괴질 즉,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이른바 '사스'는 지구를 돌고 있는 UFO가 한반도 상공도 스쳐 지나갈수도 있다는 그런 것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에 관한 문제일 뿐 국내 상륙은 불가피하다"는 보건 최고 당국자의 말 한마디에 일부 언론사, 특히 방송사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UFO가 지나가는데 아니라 상륙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야된다는 것이죠. 바로 속보 때문입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하니 여기에 대한 재해(?) 특별보도 준비를 해야된다는 것이나 같은 것이죠. 이후 언론사는 사스를 다루는 보도 형태가

거의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도 비중이 엄청 커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태풍 사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의 일거수 일투족을 야간 불침번 서 듯 감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태풍이 오는 것을 늦게 알릴까봐 걱정이 돼서 말입니다. 태풍의 심각성을 알리며 A급인지 B급인지를 알려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려야 되니까요.

보건당국 직원들은 말 그대로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를 연일 이어갔습니다. 밤에 사스 의심 환자라고 신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일 비상은 반복됐습니다. 대부분 간이 침대를 놓고 보건원에서 밤을 새기가 일쑤였습니다. 태풍 사스에 관한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방송사들의 속보경쟁도 뜨거워졌습니다. 국내에서 첫 사스 추정환자가 발생했다는 좋지 않은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요. 이 좋지 않은 소식을 먼저 전하기 위해 국립보건원에 하루종일 지키고 있는 기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보건당국의 확인도 받지 않고 사스 의심 환자가 병원에 왔다는 제보 전화만 받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총알같이 달려가는 방송사도 생겨났습니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줌은 말할 것도 없지요. 잠복기가 최고 10일쯤이러는데 10일이 지나도 환자가 안 나타나자 보건당국이 엉터리로 판정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못된(?) 의심마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국은 뒤늦게 사스는 그렇게 심한 뽕쓸병(?)이 아니라며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스에 대한 공포감을 줄여줄 것을 언론사에 요청했습니다. 치사율도 낮고, 독감 보다 별 것 아니라는 말도 추가 하며, 환자가 발생하면 독감 환자 다루듯 다루면 되고, 언론도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언론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즉 태

풍 오듯 UFO가 오듯 그런 식으로 사스를 지켜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스는 C급 태풍에 불과하다고 뒤늦게 얘기했습니다. 당국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사스에 대한 공포감을 언론이 A급 태풍으로 국민에게 심어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언론 보다는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사스의 정체가 세계적으로 파악되지 못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보건당국은 스스로 사스를 괴질이라고 불렀고 그 괴질의 공포가 A급이라는 식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사스의 정체가 거의 드러나고 세계적으로 사스에 대한 방역 체계가 초기 보다 잘 작동되자 이제서야 태풍은 무슨 태풍, 지나가는 폭우일 뿐이라고 떠벌이는 것이죠. 사스의 공포는 분명 줄어 들었습니다. 국내 감시체계도 지금까지는 사랑하는 사람 '사스'를 부르고 부르다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져 간 '땅부석 수준'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의 말을 100% 인정해 공포감을 키운 것도 언론이었던지 모르지만, 공포감을 줄여 준 것도 언론이었습니다.

태풍 피해를 막으려면 기상청의 정확한 예보가 필요하듯 '사스 태풍'을 막으려면 보건당국의 정확한 예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태풍 피해를 줄이고 국민에게 알리는 전문 기상 예보관 수준의 설명도 필요합니다. 언론은 기상예보를 전할 뿐입니다. 전문 예보를 위한 슈퍼 컴퓨터같은 장비 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보건 예보관' 수준에 걸맞는 설명도 뒷따라야 할 것입니다.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되는 사스 의혹을 언론들이 혹시라도 갖는다면 그것도 당국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언론은 '사스 태풍' 예보에 맞는 수준으로 정확히 전해야겠지요. 지나친 불안감을 주는 자극적인 보도나 화면을 보여주는 것을 언론 스스로 자제해야 됨은 물론이고요. PPFK